



임시완

임시완 “맛있고 찰진 대사 매력 느껴” 신세경 “썬 척하는 푸들 캐릭터 만족”

JTBC 청춘 드라마 ‘런 온’ 첫 방송 임 “몽글몽글한 느낌 편안한 드라마” 신 “외국인 배우들과 출연 재밌어”

올 하반기 청춘 드라마들이 안방극장을 장악해 온 가운데, 정춘의 아픔과 성장을 다룬 드라마 ‘런 온’이 새롭게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JTBC 새 수목드라마 ‘런 온’의 첫 방송이 16일 방영됐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단거리 육상 국가대표 기선겸(임시완 분)과 한 장면을 수없이 되감으며 봐야만 하는 영화번역가 오미주(신세경)의 성장과 사랑을 그렸다.

육상계 간판선수 기선겸 역을 맡은 임시완(32)은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대본을 읽는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쓰는 어법과 비슷하면서도 말이 되게 맛있고 찰진 느낌을 받았다”며 “그런 대사들을 보고 이 작품을 정말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이어 “달달하고 간질간질한 장면이 많은 작품을 하게 돼서 어두운 작품을 할 때보다 확실히 평상시에도 기분이 좋은 일이 많은 것 같다”며 3년 만에 로맨스 극에 입한 소감을 밝혔다.

임시완은 “드라마를 모니터링하면서 몽글몽글한 느낌, 색깔로 따지자면 파스텔 톤 계열의 느낌이 들어 보는 동안 마음도 눈도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며 “세상을 바라보는 감독님만의 시선이 반영돼서 드라마의

색깔로 표현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세경(30)은 자신이 맡은 오미주 역을 ‘썬 척하는 푸들’이라고 정의하면서 “단단하고 강도가 있는 느낌인데 누군가에 대한 애정을 품기 시작하면서 찌질해지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런 입체적인 부분이 현실적이고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화 번역가지만 통·번역을 해줘야 하는 상황들이 극 중에서 나와 영어 대사를 소화해야 했다”며 “외국인 배우들과 합을 맞추는 것도 재밌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런 온’ 연출은 ‘김과장’, ‘정도전’, ‘굿 닥터’ 등의 이재훈 PD, 각본은 신예 박시현 작가가 맡았다.

이 PD는 “대본의 대사와 구성이 참 좋고 탄탄해서 대본의 흐름을 바꿔서 편집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제가 어떻게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좋은 대본을 주셔서 작가님과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작품에서 육상 국가대표 선수, 영화번역가,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 등 다양한 직업군이 소개되는 만큼 또 다른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그는 “저희가 해당 직업군에 대해 잘 모르지만, 시청자분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황석희 번역가 등 많은 분께 조언을 듣고 확인을 받았다”며 “최소한의 리얼리티와 진정성을 담으려고 했다는 게 잘 보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런 온’에는 임시완과 신세경 외에도 최수영, 강태오, 박영규, 차화연 등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신세경

변하지 않는 쌀과 밥을 예찬하다

MBC 다큐플렉스 ‘백종원의 동방미로’ 17일·24일 방송 전통 농법 고수 베트남 마을·명품 쌀 이천 추수현장 등 찾아

MBC TV ‘다큐플렉스’는 긴 세월 우리의 밥상을 지켜온 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백종원의 동방미로’를 방송한다고 16일 예고했다.

방송가 요리 열풍을 불러온 백종원 대표의 2회에 걸쳐 아시아 언택트(비대면) 쌀 여행을 통해 화려한 음식에 밀려 잊고 있었지만 민약 음식 시장이 열리자면 공로상 후보 1순위 쌀과 밥을 재조명한다.

백 대표는 먼저 베트남 하장성 북부의 고산지대 황수피에 대해 이야기한다. 농업의 대부분이 현대화를 이뤘지만 수백 년 동안 전통 농법을 고수해온 마을이다.

주민들이 추수 후 풍년에 감사하고 마을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특별한 제사를 올리는 모습을 살펴본다.



대한민국 명품 쌀 대표 산지인 이천의 추수 현장으로도 향한다. 이천은 최근 ‘해물미’, ‘알찬

미’ 등 자체 품종을 개량하며 변함없는 밥맛을 지켜가고 있다. 백 대표는 콤팩인을 타고 추수를 돕고, 새참용으로 된장찌개 짜글이를 선보이기도 했다.

마지막 코스는 익산의 율화가 올라간 황등 비린밥이다. 일반 비빔밥과 다르게 미리 비벼져 나온 음식이라 ‘비빔밥’이란 이름이 탄생했는데, 채석장의 바쁜 석공들을 위한 배려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일반 사람들도 오랜 전통이 담긴 밥맛을 즐기기 위해 황등 비린밥을 찾는다.

이처럼 과거 쌀은 돈이자 권력이었지만, 밥은 서민의 것이었다. 1년 내내 농사지는 쌀을 권력자들에게 바치고 나면 서민들에게는 남은 쌀이 없었다. 서민들은 양은 적지만,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남은 쌀을 즐기며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장터국밥이나 캄보디아의 흰 쌀죽 보듯 등도 대표적이다.

17일과 24일 밤 10시 40분 방송.

/연합뉴스

록 뮤지션 강산에, 10년만에 새 싱글 내놓다

‘가만있어봐라’ 오늘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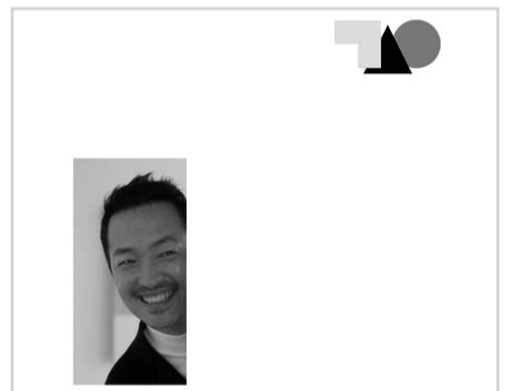
일상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메시지의 음악을 들려주는 록 뮤지션 강산에가 17일 10여 년 만에 새 싱글을 발매한다.

소속사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에 따르면 강산에는 17일 낮 12시 새 싱글 ‘가만있어봐라’를 발표한다.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재에 본인의 생각을 담아낸 유쾌한 곡 ‘톡톡탁’과 컨트리풍 사운드에 돋보이는 ‘섬의김밥’ 등 두 곡이 수록됐다.

강산에가 유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앨범 커버는 수록곡 ‘톡톡탁’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이번 싱글에 대해 “강산에 특유의 소탈한 일상의 모습을 담아내며, 강산에를 기다려온 기존 팬들과 그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 모두에게 지친 일상을 새롭게 돌아볼 에너지를 안겨줄 것”이라고 전했다.



강산에 새 싱글 ‘가만있어봐라’

강산에는 일상의 모습을 포착해 진밀하면서도 철학적 메시지가 공존하는 음악, 시대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들려주는 뮤지션이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다구요’, ‘난 할 수 있어’ 등의 노래로 사랑 받았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 앱 주문 (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법무사 이영석사무소 동구 범실로 16-1(지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 등 상담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명서,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법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	In.ssalon_sia 동구 경양로 234 그랜드센트럴 119동 807호 휴무 : 매주 월요일 영업시간 AM. 10:00 ~ PM. 8:00 ☎ 062)233-1202	보물섬회 활어회 직판장 동구 산수동 556-58 (광주은행 앞) 프랜차이즈, 홀손님 환영 포장전문, 각종회 산지직송 산수직영점 ☎ 062)234-8882, 010-3621-0123	드림케어슬루션 동구 금남로 161-11 금오빌딩 3층 의료기기도·소매 은·냉·알칼리이온수기 5분도빨(황미쌀) 즉석 도정기 ☎ 010-3118-5679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국수나무 광주신안점 북구 서암대로 95 (신안교 앞 교문상가 1층) 각종 국수와 돈까스, 각종 식사류 ☎ 062)531-0331, 010-5511-0331	제니골드(귀금속카페) 동구 총장4가 3-3 (광주 총장로 귀금속거리 사거리) 금(14k·18k·24k) 매입·판매 아메리카노, 자몽에이드, 진저리페, 생강차 대표 박형수 ☎ 010-8619-2954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깔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법무사 김운희사무소 목포시 정의로26-4 보조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면책,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
고 전 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신 예술의 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웅추해신삼계탕 북구 저불로 93(용봉동 3차현대아파트 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	평화의자소파 북구 운암동 794-13(대차초등학교 옆) 가정용, 영업용 불박이, 료소파, 업소용 제작 천갈이 리폼전문 각종 소파 천갈이 수리 및 제작 전문공장 ☎ 062)371-2110, 010-9404-3571	박 당 화 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